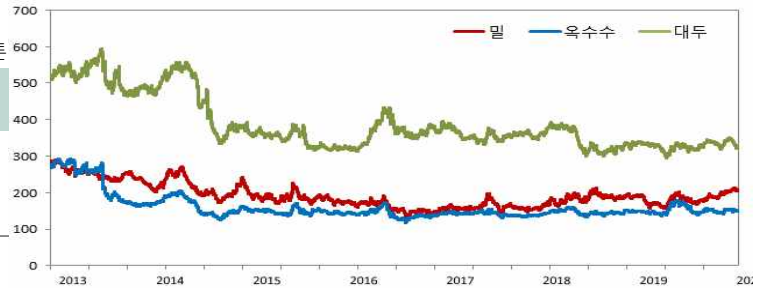


## 옥수수 및 밀 선물가격, 기술 매수 및 환매수로 인해 상승

###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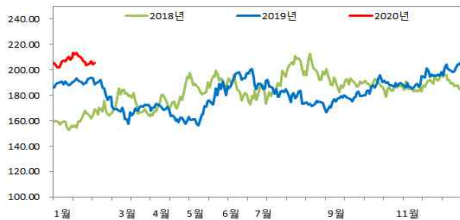
구분	기준일 ('20.02.07)	전일대비	전월평균 ('20.01)	2019 평균
밀	205.30	▲0.5%	208	182
옥수수	150.98	▲0.1%	152	152
대두	324.07	▲0.1%	339	328

단위 : US\$/톤



주1.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 (밀 : 3월, 옥수수 : 3월, 대두 : 3월물) 정산가격임.

###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5%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기술적 매수와 환매수로 인해 상승 마감했다. 시카고거래소 3월 계약은 12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월요일에 50일 평균 이하로 떨어졌지만 상승세로 마감했다. 무역업자들은 중국 수입업체들이 최근 2020년 상반기 동안 프랑스 밀을 선적하기 위해 예약했고 지난 몇 달 동안 중국으로의 수출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IKAR 컨설팅업체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밀 공급업체인 러시아는 중국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과 같은 요인들이 국내 판매를 농부들에게 더 나은 옵션이 되면서 이번 시즌에 3,200만 톤 미만을 해외로 선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1%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국의 對중 농산물 수출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차트 기반매수와 환매수로 상승세를 보였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수요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지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1 단계 무역거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수요를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품시장에 드리워져 왔다. 달러화 강세로 인한 달러는 미국 곡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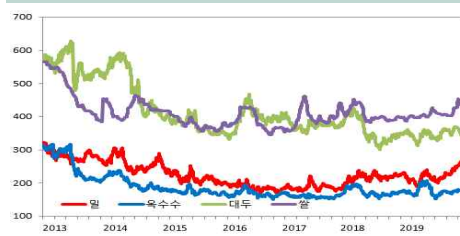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1%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가벼운 기술적 매수와 옥수수와 밀의 강세가 남미 대두 수확량에 대한 압력을 상쇄함에 따라 소폭 상승했다. 일주일 동안 시카고 거래소 3월 대두 SHO 계약은 부셸 당 9~9.25센트(1.1%) 상승해 3주간의 하락에서 멈췄다. 브라질의 실질 BRL은 통화가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브라질 농민들이 달러 표시 대두를 판매 하도록 장려했다. ARC Mercosul은 브라질의 2019/20년 대두 수확량이 금요일 기준 15.7%로 전년도의 27.3%와 비교된다고 말했다. 최근 내린 비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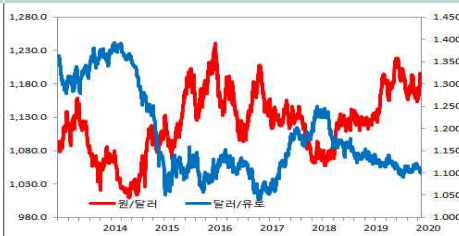
### 관련동향

- 곡물 및 오일시드의 걸프 수출 프리미엄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최근 가격 하락에 따른 재배자 판매 감소로 대두 수준이 상승했지만, 옥수수 입찰은 활발한 현물 수요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밀은 대체로 평평했다.
- 7일 국제유가는 OPEC+ 추가 감산 불확실성, 미 원유 시추기 수 증가,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했고, 중국의 경기부양책 기대 등은 하락폭을 제한.

### 곡물 수출가격 (FOB)



### 환율



### 국제유가



구분	곡물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기준일	전일대비	기준일	전일대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53	▼0.8%	환율	원/달러	1,181.4	▼0.6%
	옥수수	176	▼0.6%		달러/유로	1.0980	▼0.2%
	대두	347	-	국제유가	WTI	50.32	▼1.2%
	쌀	435	-		Dubai	54.37	▼1.5%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근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업은 '20.02.06(수출가격), '20.02.07(환율), '20.02.07(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